

“문화와 역사의 숨결 찾아 길 떠난다”

유홍준씨 저서 계기 ‘의미있는’ 여행 안내하는 답사기 출판 붐이류

지난 여름이 더위를 피해 물속 그늘속으로 달아나기에 바빴던 ‘避暑 酷署’의 여행이었다면, 미처 못떠났던 여름휴가를 야겨두었다가 늦여름 초가을의 여행을 떠나고자 하는 이는 이제 한숨 돌려두고 서점가에 수두룩히 나와 있는 각색의 ‘답사기’들과 함께 해도 좋겠다.

변변한 여행 가이드북 하나 제대로 없었던 우리네 서가에 지난 한해는 자리가 미어지도록 많은 ‘답사기’들이 쏟아져 나왔다. 단순히 책의 수만 많아진 것이 아니고, 다양한 갈래의 여행에 관한 기록들이어서 길떠나는 이가 입맛에 맞는 것을 까다롭게 고르다한들 부족함이 없겠다.

특징적인 현상은 그저 놓고 오는 데 도움을 주는 단순한 정보서가 아니라 뭔가를 배우는 여행, 좀더 의미있는 여행을 해보겠다는 이들의 길안내를 자처한 ‘답사기’들이 붐을 이룬 점. 내용면에서뿐 아니라 책 제목을 그렇게 달고 있는 책만도 여러종 되었다. 이전에 나와있던 비슷한 류의 책 몇종도 합하면 이제 여행도 고품격 시대로 접어든 셈이다.

절에 관한 답사기 단일 소재론 가장 많아

한국인에게 절은 종교의 성지라기보다는 생활 속의 쉼터 성격이 강하다. 그것은 불교가 우리에게 전해진 수 천년 전부터 하나의 삶의 철학, 정신적 지주의 역할을 더 크게 해왔던 것과 상관있다. 그러다 보니 중요한 문화유물은 절과 관계되거나 불교와 관련된 것이 많다.

또한 그 절은 거의가 풍광이 좋은 산을 끼고 있거나 물이 보이고 지세가 좋은 곳에 위치해 있다. “좋은 산이 있으면 그 안엔 반드시 좋은

지난 한 해는 서가의 자리가 미어지도록

많은 여행관련 책들이 쏟아져 나왔다.

단순히 책의 수만 많아진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갈래의 여행에 관한

기록들이어서 길떠나는 이가 입맛에

맞는 것을 까다롭게 고르다 한들

부족함이 없겠다. 특징적인 현상은

좀더 의미있는 여행을 해보겠다는

이들의 길안내를 자처한 ‘답사기’들이

붐을 이룬 점이다.

절, 명찰이 있게 마련”이니 문화유산을 찾아 떠나고 좋은 곳을 찾는 답사기, 여행가이드북들은 따라서 절에 관한 기록들이 많다.

「절을 찾아가는 마음」(책만드는 집)의 저자 신영훈 씨는 30여년간을 목수로 일해온 글쓴이로서는 특이한 이력의 주인공이다. 목수가 운데서도 단연 뛰어난 목수를 ‘대목’이라 부르듯 그는 “한국의 최고가는 목수”로 불리며, 옛 문헌 속에 흔적만 남아있는 건축물을 복원한다거나 낡아진 유명건축물을 되살려내는 일을 해왔다.

화엄사의 각황전, 쌍봉사의 대웅전, 남대문, 석굴암, 안동 류홍우 씨대, 송광사 대웅전 등이 그의 손을 거쳐 되살려진 건축물들. 그는 이 책에서 주로 절 건축물을 중심으로 그런 복원에 얽힌 이야기에서부터 건축물의 내력, 문화재적 가치를 논하는 글들을 실고 있다. 외



여행지들에 의해 ‘국보 〇호’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상천되는 부석사 무량수전 앞의 전경.

양만 보고 뭐가 어떻다고 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구성되고 만들어진 과정, 절의 구성물 하나하나가 가진 의미를 중심으로 직접 만든 사람의 얘기를 들으니 이해는 더 깊어질 수밖에 없겠다.

간송미술관 연구실장으로 있는 최완수 씨가 쓴 「명찰순례」(전3권, 대원사)는 “역사의 숨결은 이를 일깨워줄 만한 사전지식이 없으면 실감하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답사여행의 ‘화두’로 회자될 만큼 유명한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1권에 나오는 귀절, “아는 만큼 보인다, 그러나 몰라도 사랑하면 알게 된다”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문구로 ‘바른 여행’의 전제조건을 일러준다 하겠다.

제목 그대로 이 책은 송광사·화엄사·불국사·범어사·통도사·해인사·무위사 등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명찰 56여곳에 대한 기록이

다. 앞서의 사전지식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나면 “시서문, 조각, 건축 등 각종 문예 및 유교를 비롯한 제자백가에 대한 폭넓은 지식이 그것이다”고 답한 바 있는데, 어렵다고 소문난 그의 글은 바로 그런 해박한 지식에 연유하는 것인 바, 안내하며 읽는 재미도 각별하겠다.

고궁, 차문화, 문화유적지에 관한 답사기들

절에 관한 품격있는 산문으로 오래전부터 뜻있는 여행객들의 사랑을 받아왔던 책이 시인 고은의 「절을 찾아서」(책세상)이다. ‘여기 있어라, 큰 스님이 되리라’(직지사) ‘나뭇잎 새 하나에도 보살이 깃들여’(쌍계사) ‘하늘과 땅과 사람 가운데 으뜸’(갑사) 등 한때 승려였던 그의 사찰에 대한 인식을 유감없이 엿볼 수 있다.

도서출판 타래가 두 권의 역작을 발표합니다

전자편집디자인을 위한 <오토페이지> 활용

책 속에
(오토페이지)가
들어있습니다

이 책의 특징

- 이보다 상세한 <오토페이지> 해설서는 없다고 자부합니다.
- 기능 해설 + 편집 디자인 실무로 꾸며졌습니다.

이 책을 꼭 권하고 싶은 분들

- 다른 DTP소프트웨어 기능에 불만이 있는 분.
- 워드프로세서 편집 기능에 부족함을 느끼는 분.
- <오토페이지>에 대한 정확하고 상세한 기능을 알고자 하는 분.
- <오토페이지>로 미려한 편집 디자인을 구현하려는 분.

크라운판 / 514쪽 / 정가 20,000원



도서출판
타래

서울 마포구 상수동 309-3
상수빌딩 201호
전화 325-1945, 5439
팩시 325-5439

우리 글 바로잡기 실무 (I)

- 우리 글 교정이 쉽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요.
- 어문 규정을 들춰본다고 교정이 해결됩니까?
- 그렇다고 교정 보는 일을 포기할 수도 없는 일.

자, 여기 확실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 '기초단계' > '숙달단계' > '응용단계'로 나누어 실습을 통해 교정을 마스터할 수 있도록 꾸몄습니다.
- 각각의 교정에 대한 상세한 해설도 달아 놓았습니다.
- 완전 실무 체형 방식으로 꾸몄습니다.

크라운판 / 320쪽(예정) / 정가 8,000원

음식점주인들이 차려준 보은의 잔치

홍성유의 「한국 맛있는 집 999점」 출판기념회



입맛을 앗아가는 점점더위 속에서, 한국의 내노라하는 別味 1백여종을 한자리에서 음미하는 이색 출판기념회가 열렸다. 원로 작가 伯坡 洪性裕씨(66)가 전국유명음식점 999곳을 소개한 「한국 맛있는 집 999점」의 출간을 계기로, 그 책에 수록된 업주들의 모임인 '다담회'의 100여 점포에서 맛자랑 경연대회를 개최한 것이다.

8월 8일 오후 7시, 올림픽공원 호숫가에서 열린 이 행사에는 김대원 예술원회장, 조병화·김남조·황명·문덕수·김중해·이형기 시인, 소설가 정한숙·이문구·김용성·김병총씨 등 한국문단의 원로·중견 500여 문인이 참석, 호텔부페보다 몇배는 맛깔스럽고 풍성한 음식을 즐겼다. 소렷바닥 요리, 달팽이 요리, 통오리 밑밥 등 전국각지의 산해진미에 예산군 수덕사 앞 '그때 그집'의 칩솔까지 곁들이는 그 수라상을 받은 참석문인들은 뿌듯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이 날의 '호스트'인 작가 홍씨는 "이렇게 성대한 출판기념회를 갖게 돼 얼떨떨하면서

도 기쁘다"면서 "별미여행의 참뜻은 미식·호식을 하자는 게 아니라 곰탕 한 그릇, 깍두기 몇 점을 먹어도 제대로의 맛을 내는 제맛의 것을 먹자는 뜻"이라고 말했다.

「한국 맛있는 집 999점」은 저자가 20여년 동안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발굴한 음식점을 정리하여 2권으로 묶은 책이다. 제1권에는 서울, 인천, 경기도, 강원도 지역의 음식점이 소개되며, 제2권에는 그 이외의 별미집들이 망라되어 있다. 식도락의 최고권위자인 저자는 각 점포에 대한 정보차원의 자상한 안내와 더불어, '식도락 여행' 중에 겪은 미담과 기행담을 양념처럼 집어넣어 미각의 맛과 멋을 동시에 전달하고 있다.

조병화 시인은 이 책에 대해 "食文化"의 새로운 이정표이자 별미여행의 원전"이라며 "더군다나 요즘 마이카 시대가 되어 손쉽게 드라이브를 즐길 수 있는 판국에 이러한 음식점 안내서가 있다는 것은 복음 중의 복음"이라고 말했다.

문학수첩/B6변형/각 570면/각 7000원

아무래도 요즘의 답사기 붐을 일으킨 장본인은 영남대 유흥준 교수가 지난해 6월 발간한 「나의 문화유산답사기」(창작과비평사)가 아닌가 싶다. 최근 그 2권이 나와 또다시 화제가 되고 있는데, 1권이 주로 그가 '남도답사 1번지'라 부르는 전남 일대에 대한 기록이었다면, 2권은 지리산 동남쪽의 함양·산청에서 시작, 청도 운문사, 토함산 석불사, 영풍의 부석사를 지나 민통선 부근의 철원에 이르는 남도의 동쪽 아래서 38선까지를 섭렵하는 긴 여로를 담고 있다. 1권의 위력에 매혹 당해본 독자라면 꼼짝없이 2권을 사들고 여행길의 동반자로 삼게 되리라.

유흥준 교수의 「나의...」가 문화유적에 대한 '해설서'라면 그가 이끌고 있는 문화유산답사사회의 회원들이 펴낸 「답사여행기의 길잡이」(돌베개)는 상세한 '안내서'로 효율적이면서도 알찬 여행을 위한 꼼꼼한 길잡이다. 모두 10권으로 기획, 최근 1차분 '전북'과 '경주'편이 발간됐는데, 앞으로 '전남' '관동' '서울근교' '경북' '지리산·남해' '충남' '경남' '충북'편이 곧 발간될 예정이다.

유흥준 교수의 책과 더불어 요즘 인문과학 분야 베스트셀러로 떠올라 있는 「무량수전 배흘림기둥에 기대서서」(학고재)는 미술사학계의 정신적 스승인 해곡 최순우(전 국립중앙박물관 관장)의 글모음이다. 건축, 불상, 석탑, 금속공예, 목칠, 신라토기, 청자, 분청사기, 불화, 민화 등 우리문화재의 아름다움이 동료·후학들에 의해 "숨겨진 미적가치를 발굴해 내는 대안목" "그의 글을 읽는 사람은 누구나 우리것에 대해 깊은 사랑을 느끼게 된다"는

자타가 인정하는 名文에서 더욱 빛을 발한다.

「서울의 고궁산책」(허균, 효림)은 지역은 서울 한 곳, 그 중에서도 다른 곳이 아닌 4대 고궁에 대한 해박한 안내서다. 물론 고궁의 초입에서 받아볼 수 있는 팸플릿을 엮어놓은 게 아니라 오랫동안 그것만을 연구해온 전문학자(정신문화연구원 선임편수원)의 안목이 안내하는 고궁관람의 가이드북이다. 고궁들의 역사와 건축장식물의 의미·상징성을 심도있게 서술하고 있다.

또 특이한 한 권의 책으로는 茶문화의 유적지를 순례한 기록이 있다. 김대성(한국일보 생활과학부 차장) 씨가 쓴 「차문화유적 답사기」(전3권, 불교영상회보사)는 차가 생산되고 그 문화가 전승되거나, 흔적이 남아있는 지역을 10여년간에 걸쳐 답사한 기록이다. 차의 유래에서부터 우리나라에 전래된 경로, 선인들의 차생활 등 차를 즐기고 관심있는 사람들에게 유익하겠다.

그냥 읽기만 해도 즐거운 글들

시간의 여유가 넉넉하다면 책이 안내하는 일정을 따라 3박4일이고 4박5일이고 떠날 수 있을 테지만 그렇지 못한 이들은 한나절의 고궁산책도 유익하겠다. 그조차도 여의치 못한 사람은 책을 곁에 두고 짹짹 들춰봐도 좋으리라. 그러면 서늘하고 풍요로운 정취가 몸의 피로를 풀고 언젠가의 떠나게 될 긴 여행에의 꿈을 꾸게 하리라.

—정혜옥 기자

최신 정보에 의한 가장 좋은 컴퓨터서적!!

첨단 컴퓨터서적 전문출판!!
크라운출판사

서울특별시 중로구 연건동 273-12 TEL:745-0311~3 FAX:741-3231

- **최신컴퓨터용어대사전**
최신용어를 빠뜨리지 않고 수록하였으며, 한글 색인을 수록하여 사용하기 편리하게 편집하였다. 컴퓨터용어사전편집위원회 편/15,000원
- **반가워요 MS-DOS 6**
하드디스크를 압축하여 2배로 쓸 수 있는 Double space, 메모리 최적화 기능의 Mem Maker DOS, 바이러스 검역과 제거 등 다양한 기능이 수록되었다. IDA 그룹 저/8,000원
- **DOS! 너 잘 만났다**
컴퓨터의 어떤 것을 공부해야 할지에 대한 방법을 제시해 줌으로써 기초를 탄탄히 해주고 그림과 함께 설명하여 지루하지 않고 쏙쏙 머리에 들어온다. 조현욱·임용훈 공저/6,500원
- **자세하게 배우는 dBASE III PLUS**
dBASE 명령어의 사용법과 의미를 정확히 파악했고, PROGRAM작업에 적용할 수 있게 체계적인 순서를 받아들였다. 손희정 저/7,000원

- **dBASE 3+와 CLIPPER 실습**
dBASE 패키지와 클리퍼의 명령어, 다양한 함수를 빠짐없이 수록하였다. 박양재 외 3인 공저/15,000원
- **강의식으로 배우는 Lotus 1-2-3 R. 3.4**
아이콘 페리티 등을 중심으로 실습과 함께 자세한 설명을 곁들였다. 서영준 저/8,000원
- **FoxPro 2.5**
실질적인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방법, 명령어와 함수, SQL 등에 관한 내용이 있다. 김윤희 외 4인 공저/11,000원
- **윈도우즈용 Adobe Photoshop V.2.5**
2차원 통합 그래픽 프로그램으로 광고디자인, 전자출판, 애니메이션, 순수미술 등에서 완벽한 제품을 해냅니다. 안종찬 저/12,000원

- **한글 윈도우 3.1**
한글 윈도우 3.1을 그림을 곁들여 설명하여 초보자도 자유롭게 Word Processor, Graphic Editor, CAD프로그램 등을 쓸 수 있게 하였다. 이희조, 노중수 공저/12,000원
- **MS-ACCESS(윈도우즈용 데이터베이스의 절정 고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구조 지원, 테이블, 폼, 쿼리, 리포트, 매크로, 모듈 등을 포함하는 객체 지향 데이터베이스 등을 수록하였다. 지주동호회 저/11,000원
- **배치파일**
배치파일로 프로그래머들만이 만들 수 있었던 여러가지의 간단하고 편리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 이택수 외 1인 공저/8,000원
- **AutoCAD R.11+R.12**
AutoCAD 설치하기 및 들어가에서 AutoCAD의 SETUP에 관한 명령어, 기타 UTILITY, 3차원까지 AutoCAD의 모든 것을 실었다. 주봉출·김정희 공저/10,000원

- **MAC, IBM 우리는 친구**
매킨토시와 IBM-PC의 자료교환을 중심으로 하여, 맥의 기본 지식과 PC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매킨토시를 설명하여 이해를 도왔다. 김건식 저/7,000원
- **컴퓨터 바이러스(예방·치료)**
컴퓨터 바이러스의 발생 원인과 퇴치 방법, 백신 프로그램에 대하여 설명하여, 예방과 치료를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권석철 저/12,000원
- **내가 만드는 컴퓨터**
컴퓨터의 제작 및 각 에러에 대해 사용자 본인 이용조치 할 수 있게 했으며, 사용자와 컴퓨터간의 친밀도를 높게 하였다. 이원재 저/7,000원
- **신세대 트러블 DOS 6.0+한글 2.1+한글 윈도우 3.1**
한권으로 3가지의 기능을 담고 있는 다기능 신세대용 책이다. 류재구 저/12,000원

- **한글워드 5.0**
고품위의 문서 작성을 할 수 있는 워드 아트 기능이 있으며, 한글 워드로 100% 편집을 실현하는 워드프로세서의 진가를 보여 준다. 임용기 저/8,000원
- **한글 2.5**
편집중심, 예문풍부, 화면 편집 100%, 지면배치, 연립기능, 권장치제시, HP4 600dpi, 책자편집의 실례등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정일우 저/8,000원
- **PC 사용자 가이드**
컴퓨터 바이러스, dBASE III PLUS, LOTUS 1-2-3, 포트란 등에 관한 기본 상식과 클리퍼 컴파일러 사용방법, Turbo-C Ver 2.0, 윈도우즈 사용법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최형오 외 3인 공저/10,000원
- **HYPERTEXT COBOL-85**
예제프로그램에 대한 기억장소 배치도(Memory Map)와 순서도(Flow Chart), 코딩(Coding)을 설명하였고 실기 시험 문예도 수록하였다. 허병연·허희연 공저/12,000원